

동해시, 지역상권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포럼

동해시는 오는 11월 12일(수) 오후 2시, 현진 관광호텔 2층 카라홀에서 '지역상권의 정체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강원연구원 주최로, 시·군 협력과제인 「동해시 정체성 기반 전통시장 브랜드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한 상권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전문가·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해 실현 가능한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포럼은 배상근 강원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윤 동해시 부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이어 '동해시 상권의 현황과 도전'과 '문화정체성 기반 상권 브랜드 전략'이라는 두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관계자 등 3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관내 경제단체, 시민 등 지역 현장 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이 함께 어우러지는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임성민 경제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시의 문화정체성을 반영한 상권 브랜드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원도시 비전 공유 ‘춘천호수

국가정원 포럼·페스타’

정원도시 춘천의 의미와 비전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춘천호수국가정원 포럼 및 페스타’가 오는 14~15일 에니메이션박물관 갤러리톤에서 열린다.

행사 첫날인 14일 오후 3시 개막퍼포먼스는 이두성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의 연출로 춘천시립교향악단 출신 연주자 등이 참여해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3시 40분부터는 ‘춘천호수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

이유미 전 국립수목원장, 오경아 정원디자이너, 윤영조 강원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정원도시의 방향과 과제 △도시 속 정원의 가치 △춘천형 정원도시 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신성열 춘천시의회, 최주영 봄내가드너스 대표, 서미순 보라시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모델을 모색한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호수정원 페스타’가 펼쳐진다. 마임공연 ‘슈트맨’, 광대퍼포머 ‘모즐’, ‘현악기연구소’의 클래식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돼 시민들이 즐기며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이오나사 테라리움 만들기, 자연물 소품 제작, 플로럴 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미니바오밥나무가 증정된다.

시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호수정원 조성 아카이브’ 사업도 추진한다. 상중도 일대의 자연환경과 조성 과정, 완공 이후의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해 향후 국가정원 도시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106회 전국체전 강원선수단 환영 행사

11.10.(월) 오후 2시 20분 춘천 스카이컨벤션, 시작 전 1시간 카퍼레이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1월 10일(월) 오후 2시 20분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강원선수단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 교육감, 양희구 도 체육회장 등을 비롯해 전국체전 MVP 황선우 선수, 대회 5관왕 신술이 선수와 양재훈 선수 등 선수단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지도자 및 도민 등 총 300여 명이 함께 자리해 강원 체육의 성과를 축하했다.

강원선수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점수 40,042점을 획득,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종합순위 6위, 메달순위 4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815점 상승해 2년 연속 성취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6개 종목에서 17개 신기록을 세우며 역대 최다 신기록을 달성했고, 9개 종목에서 18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는 등 강원 체육의 저력을 입증했다. (5관왕 2, 4관왕 3, 3관왕 4, 2관왕 9) 특히 이번 환영행사는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정선군에서 대여한 2층 버스와

와버스를 활용한 카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선수들은 환영식 개최전 춘천체육회관에서 명동~스카이컨벤션까지 약 1시간 동안 시민들과 소통하며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황선우 선수는 “도청 팀에 합류한 지 4년 차,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의 좋은 지원과 환경 덕분”이라며, “지원 뿐만 아니라 김진태 지사님께서 경기장까지 오셔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자신감과 든든함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양희구 체육회장님은 경기결과와 관계없이 늘 연락을 주시며 응원의 힘을 보내주셨고, 이보은 감독 덕분에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제 수영 인생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그동안 도 체육회 예산을 3년 전보다 50%정도 더 올렸는데, 내년에는 전문 지도자분들께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두 배로 올려 체육인들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평창군은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표지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리조트, 아파트 단지 등 총 6개소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유도선 훼손, 설치 기준 미준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주차

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사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주차위반 10만 원, 고의적 주차방해 50만 원,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준수 필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주차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본격화

올해 농가의 일손을 도왔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본국 귀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횡성군은 2025년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315명에 대한 출국을 12월 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0월 30일까지 47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마쳤으며, 남은 기간 11월 580명, 12월 300명 등 총 880명의 근로자가 근로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올해 3월부터 지역 내 농가에서 주요 농작물 재배와 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군은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

해 공항 이동 지원, 출입국 절차 안내, 체류 서류 확인 등 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며 “몇 개월간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도록 끝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다”며, 출국이 안전하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10월 24일까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총 393농가, 1,701명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4개소, 140명 등 총 1,84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29일 법무부에 배정 신청을 마쳤다.

속초시, 선제적 제설 대응체계 구축 시민 안전 빈틈없이 지킨다

24시간 비상체계 운영...강설 시 제설차량 42대 집중 투입



속초시는 겨울철 강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대비에 나섰다.

시는 11월 10일 오전 8시 30분 본관 2층 디지털상황실에서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어 기상 상황별 비상근무 체계와 단계별 제설 장비 투입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대책기간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

지다. 시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예·경보와 상황 전파를 신속히 수행하고, 준비단계 - 비상 I·II·III단계의 4단계 비상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공공시설물은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황별 맞춤 조치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도로 분야는 신속한 초동 제설과 가용 전력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김민석 기자

시는 주간선도로인 동해대로와 보조간선도로인 중앙로 등 32개 노선, 총 102.5km를 중점 제설 구간으로 지정했다. 강설 시 제설차량 42대(시 보유 10대, 민간 임차 31대, 추가 1대)를 동시 투입해 집중적인 제설 작업을 펼친다. 42대의 제설차량은 지난해 대비 1대가 늘어난 수치로,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결빙 우려 지점에 제설함 105개를 배치해 결빙 대응 능력을 높였다.

제설 자재는 11월까지 고상 제설제 920톤, 염화용액 70톤, 모래 130㎥를 확보해 비축하며, 제설 차량, 살포기, 제설 삽날 등 장비 상태도 사전 점검을 마쳐 강설 즉시 투입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설자재보관창고는 올해 6월, 제설대응 거점 강화를 위해 노학동 1006-219번지 일원에 신축됐다. 연면적 540㎡ 규모로 제설제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창고 일원 주차장에는 제설차량을 배치해 폭설 시 신속한 출동과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남원주 나들목(IC) 진입부 차로 확장 추진



원주시는 올 연말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 진입부 차로 확장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원주 나들목은 현재 진입 연결로가 1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출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접근 도로인 북원로까지 정체가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확장을 요청했고, 한국도로공

사는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나들목 진입 연결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불편 해소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신 한국도로공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